

5/25(수) 읍기 11-14장 대면요청

❶ 소발(첫 번째 말, 11장)

소발은 스스로를 식자, 지혜가 깊은 자로 여깁니다.

소발의 위로는 경멸과 질책, 나아가 저주에 가깝습니다(11:2-6).

욥을 무지한 자, 허망하고 악한자로 <단정>하며 책망합니다(11:7,11-12,20).

소발은 욥에게 회개의 네 단계를 처방합니다(11:13-14).

소발은 하나님의 높이, 깊이, 길이, 넓이를 강조하면서도(11:8-9),

<스스로> 욥과 욥의 고난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내립니다.

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께(11:7) 복종하고 회개하라면서도

정작 <스스로> 하나님의 일들을 <헤아리고> 있습니다.

욥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압니다(12:1-2,13-25, 13:1-2).

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며 판단할 수 없습니다.

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, 전능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(12:3).

그럼에도 고통만큼은 제발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면서

하나님께 직접 듣고자 씨름합니다(13:22-28).

욥은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소망합니다(14:1-17).

“나를 그 상태로 버려두지는 말아 주십시오!

날짜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다시 찾아 주십시오…

이 힘겨운 시기 내내 나는 희망을 놓지 않고

최후의 변화를 기다립니다. 부활을 고대합니다!

손수 지으신 피조물을 애타게 그리워하셔서

주께서 부르시면, 내가 응답하겠습니다! ”

(14:13-15, 메시지성경)

나는 하나님께 물으며 씨름하고 있습니까?

❶ 세상의 소리와 반응들에 절망하며 포기합니까?

❷ <골방>으로 들어가 주님과 대면하며 씨름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읍기 11-14장